

텃밭활동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중학생과 지역사회 주체의 인식차이*

김경미** · 정순진 · 이상미 · 정선희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The Difference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Community Concerns' Perception on Gardening Program to Protect School Bullying

Gyung Mee Gim** · Sun Jin Jeong · Sangmi Lee · Seon Hee Jeong

Urban Agriculture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the usability of gardening program in a community for protection of school bullying at a middle school. The data collected from 640pers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ir parents, teachers, residents, NPO staffs for youth, active persons in urban agriculture and farming at 3communities during 2014.10.21~2014.11.5. The degree on necessity of gardening program to protect school bullying were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t by age, garden experience, understanding and exchanging with youth and neighbors, keeping relationship or communication between school and family or residents. Most of parents, teachers prefer to increase the family counseling program by NPOs for protection of school bullying. On the contrary, concerns in urban agriculture and farming strengthened to cheer up gardening program for youth. In this study also, it was agreed that gardening program is useful for protection of school bullying and for stability of emotional safety for youth involv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se results, gardening program will be more contribution to communications and exchanges between school, student's family and their community persons as like neighbors, NPO staffs, concerns in urban agriculture and farming.

Key words: gardening program, middle school students, school bullying, community

1. 서 론

1990년대 초부터 사회적 관심이 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2014)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하였다. 2012년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 노력'과 '집합교육 중심 예방교육에서 체험형 예방교육으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가정의 교육기능과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인식제고를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은 그 가정은 물론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박진규, 2005; 오병호 & 이상구, 2012; 함성기, 2015; 홍나미 & 박재연, 2014; Miller et al., 2015)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며, 이웃과의 접촉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김대희 & 이채식,

주요어: 텃밭활동, 중학생, 학교폭력, 지역사회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PJ0102190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김경미) 전화: 063-238-6920; email: gimgm@korea.kr

2004; 박경철 & 김성수, 2001; 오해섭, 2008; 윤준상 & 최창욱, 1998; 최창욱, 김성수, 윤준상, & 박덕병, 1997).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주변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및 또래(동료)등과 같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한지연, 2007). 지역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연결감은 사람들의 자아상태, 자아실현, 자기 존중감과 함께 심리적으로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원천으로서 더욱 가치가 있다(김진완, 2015).

따라서 이웃 접촉과 소통을 늘려주면서, 청소년의 사회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홍나미 & 박재연, 2014).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청소년에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생활적응을 지원하고 성인과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강현주 & 신인순, 2015; 김옥순 & 신인숙, 2013; 박진희, 2016; 오해섭, 2008; 정연순, 고재성, 강옥희, & 서정화, 2013).

청소년에게 적합한 체험활동으로 교육부(2014)는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 배려심 증진을 위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등을 예로 들고 있으며, 교내 체육, 예술교육, 식물관찰, 숲 등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 학교텃밭은 농업체험을 통해 자연을 가깝게 느끼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6b). 농림축산식품부(2013, 2016a)에 따르면 도시농업 유형 중 학교교육형 텃밭은 2012년 2,700개 학교에서 45만 명이 참여했으나 2015년에는 3,934개 학교에서 64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텃밭활동은 청소년이 자연과 접함으로써 심신이 건강해지고, 성취에 따르는 기쁨과 긍지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또래와 작업을 통해 적절한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함께 긍정적 자아를 갖게 한다(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 2013; 남선미, 2003; 최영애, 2008). Pentz & Stratus(1997)는 행동, 감정, 관계의 건강한 조절작용에 적용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환경, 발달단계, 자신(정체성)에 대해 배운다(남선미, 2003; 최영창, 이채식, 이은영 & 김영애, 2013; Guitart, Pickering & Byrne, 2014).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정규수업으로 진행되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되고 있지만 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박진희, 2016). 자연을 느끼고 함께 배우는 농업체험은 학생 인성함양에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데 쉽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림축산식품부, 2016b).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텃밭활동을 통해 가정-학교-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학교폭력이 본격화되는 중학교와 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텃밭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주민 등 관련 주체들의 인식 차이와 관련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수와 중학생의 정서안정수준과 관련성을 부가적으로 확인하여 텃밭활동이 학교폭력 예방과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학교폭력의 개념과 예방 주체

교육부(2015)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는 전체의 0.9%, 가해는 0.4%, 목격은 2.7%라고 하였으며, 학교급 별로 보았을 때 2014년 대비 중학교가 피해 0.4%, 목격 1.2%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응답자의 폭력경험은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박성희 등(2013)은 학교폭력이 시작되는 초등학생이나 학교폭력을 유치하게 생각하는 고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은 특별한 죄의식 없이 장난삼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폭력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학교폭력(청소년 폭력)의 정의는, 따돌림도 언어적·신체적 괴롭힘 행동에 따라 다르다(김미원, 2014; 김혜원, 2013; 이미나, 2013). 교육부(2012)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라고 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사소한 괴롭힘, 장난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교육부(2015)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안이 대부분(약 75.5%)이고 학교 밖은 24.5%이지만, 공원과 놀이터, 학원과 학원주변, 등하교길 등 대부분 학교 또는 학교에 인접한 공간이다(교육부, 2015; 박효정 & 이희현, 2013).

학교폭력의 원인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요인 등으로 구분한다(Altun & Baker, 2010). 학생은 가정, 학교뿐 아니라 집(가정)과 학교를 오가며 역동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주체이다. 그 과정에서

학교와 집 사이 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므로, 학생의 학교적응, 학교폭력과 관련된 활동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적 요소를 관련시켜야 한다(김영지 등, 2006; 강현주 & 노충래, 2012; 성은모 & 김균희, 2013; 송수정, 2014). 개인요인은 인간 발달의 문제(Dumitriu, 2013)를 포함한다. 가족환경은 문제해결, 지지와 유대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박현진 & 양혜원, 2013; Contreras, Elacqua, Martinez, & Miranda, 2015). 지역사회 특성과 환경, 사회자본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의 사회환경은 그 부모의 사회적 환경이나 자원, 즉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경식, 최성호, & 이현철, 2009; 김세원, 2009; 박승곤, 김수정 & 문성호, 2013; 김태준, 현영섭, 변종임 & 이덕현, 2010; 손선옥 & 이봉주, 2015; 함성기, 2015; 홍영란, 현영섭, & 김강호, 2009).

중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은 이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발달 과정 및 또래문화 차원에서, 협동과 조화, 그리고 상상정신을 키우는 학교문화와 예방교육이 중요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는 이웃과의 교류와 관찰, 사회적 지지와 도움이 중요하다(박석희 등, 2013; Albayrak, Yildiz, & Erol, 2016; Fisher & Kettl, 2003; Jiménez-Barbero, Ruiz-Hernández, Lior-Zaragoza, Pérez-García, & Llor-Esteba, 2016; Mertoglu, 2015; Türküm, 2011; Eisenbraun, 2007). Hazzard, Moreno, Beall, & Zidenberg-Cherr (2011)는 학교폭력 예방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들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 정의에 따라 ‘학교폭력’을 규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외에, Bronfenbrenner(1979)의 인간 발달 생태학적 모형에 따른 중학생의 환경 범위(홍진영, 2013)를 토대로, 학교로부터 반경 2km 이내(걸어서 1시간 이내)에 거주하는 이웃주민과 행정구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그리고 텃밭활동에 관여하는 도시농업 및 농업관계자를 지역사회 주체로 선정하였다.

2.2. 텃밭활동과 청소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체험 학습기회나 관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시민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듯이, 교육에서도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김태준, 현영섭, 변종임, & 이덕현, 2010). 체험학습의 중요한 요소인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텃밭활동은 과학적 학습뿐 아니라 긍정 경험을 통한 긍정심리 형성에 기여한다(Laaksoharju, Rappe, & Kaivola, 2012). 식물 기르기는 짧은 기간에 생애주기를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삶과 통합적 인식

이 가능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양하며, 건강과 다양성 인식에 유용하다. 아동과 청소년이 식물을 길러보는 경험은 식물과 나 사이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심신의 활력을 제공하는데, 활동 과정에서 생명력 발견과 정서반응, 생명의 적응력에 대한 통찰, 생명력 인식에 따른 자아성장 의지표현이 나타나고(최영애, 2008; Guitart, Pickering, & Byrne, 2014), 성취감과 자기효능감, 친밀한 교우관계 형성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긍정적 자아를 갖게 함으로써 안정감·책임감·소속감 향상, 신체능력 발달, 현실감각 학습, ADHD 치유, 에너지 및 감각 활용 향상, 역할모델 형성, 대인관계 능력부모와 유대관계·자아존중감·직업능력 향상,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 2013; Hassink & Dijk, 2007). 또 함께 먹는 과정은 자아를 개방한 채 소비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과 교류를 통한 인간관계 개선과 친구의 친밀감을 높여 청소년의 또래관계 향상에도 기여한다(남선미, 2003; Guitart, Pickering, & Byrne, 2014).

이와 같은 식물 기르기 활동을 위한 텃밭 프로그램의 수용여부는 교사가 인식하는 자원의 접근성에 따라 달라지고,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텃밭전문가의 참여와 이들을 지원하는 조직체 등의 지원체계가 중요하다(Hazzard, Moreno, Beall, & Zidenberg-Cherr, 2011; 2012).

3. 연구방법

3.1. 조사항목

이 연구는 지역사회 주체들(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 기관·단체 종사자, 도시농업 및 농업관계자)의 학교폭력 및 텃밭 활동에 대한 인식과 텃밭활동의 학교폭력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텃밭활동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조사항목은 학교폭력 및 텃밭활동에 관한 내용은 선행연구들의 고찰과 2014.2-6월까지 학교관계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항목을 도출하였고<표 1>,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가정·학교·지역사회 자본과 이와 관련된 적응(정서수준), 텃밭활동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텃밭활동과 지역사회 및 학교 활동 참여 등이 학생의 생활적응(정서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자본과 정서 관련

문항(14항목, '지역사회자본 통합적 정서안정도')은 김경식, 최성보, & 이현철(2009) 및 김태준, 현영섭, 변종임, & 이덕현(2010)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조사도구는 2014. 7~8월 교육 및 청소년 전문가, 텃밭활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사하여 수정하였다.

질문지는 해당 주제별로 조사표를 작성, 조사하였고, 지역사회자본 통합적 정서안정도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긍정적인수록 점수가 높도록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0.86이었다.

〈표 1〉 조사 문항의 구성

구분	주요 항목	
	중학생(청소년)	성인
인구사회학적 일반사항	부모(보호자) 직업, 성별	직업, 소득, 학력, 성별, 연령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	학교폭력 경험, ①요즘 힘든 일, ②외롭거나 힘든 일	학교폭력 경험, 중학생 생활(①②③) 이해도, 학교폭력 대처방법, 학교폭력 의논상대, ③방과 후 가는 곳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지역사회자본 통합적 정서안정도)	과거성취 만족, 미래성취 기대, 자기주도, 호감도, 이웃친지교류, 친구)집단 관계, 가족 지지, 학교만족, 지역사회자원 신뢰도 등 14개 항목	현재생활만족, 자아존중, 경제적 여유, 또래(동료, 친구) 지지, 사회변화 인식,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자원 신뢰도 등 14개 항목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자본)	평소 관심 가져 주는 이웃, 부모(보호자) 학교 방문 빈도,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범위	교류하는 이웃, 평소 학생에 대한 관심, 학교 이용소통 빈도,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범위
텃밭 활동	텃밭체험 여부, 근처 텃밭여부(텃밭접근성), 텃밭활동참여 의향, 텃밭활동 변화, 이웃과 텃밭활동의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동의	

3.2.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학교폭력 표출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도시농업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지역에서 텃밭활동이 활발한가 여부,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노원구, 수원시 장안구, 대구 달서구 각 1개 중학교씩 3개 중학교와 그 지역을 선정하였다.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조사대상 학교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이웃주민, 같은 행정 구역에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 종사자, 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계자 등 6개 주체를 지역별로 할당 표집하였다.

조사는 2014.10.21.~2014.11.5.까지 면접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조사표를 제외하고 학생 192, 학부모 147, 교사 49, 주민 112, 기관단체종사자 55, 도시농업 및 농업 관계자 85부 등 총 64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3.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0.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인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기술통계를 분석하였고, 지역사회 주체들의 인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χ^2 -test,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분석(LSD)을 하였다.

ANOVA 분석에서 Levene의 분산분석 동질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변수(중학생 청소년 이해도, 방과 후 중학생이 가는 곳에 대한 성인의 인지, 중학생 청소년이 힘든 일에 대해 의논하는 상대에 대한 성인의 인지, 학교폭력에 대한 직간접 경험)에 대해서는 비모수 검정방법(Kruskal-Wallis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추가 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들과 학교폭력 예방에 텃밭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관계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고, 중학생(청소년)의 경우는 정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체크하였으며,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토를 위해 Durbin-Watson의 통계량을 계산하였다.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성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여성이 72.0%이며 학부모, 지역주민 중 여성 응답자가 많았다.

소득은 학부모, 지역주민에 비하여 교사, 기관단체 종사자에게서 소득이 연간 4801만원을 초과하는 비율(교사 58.3%, 기관단체 종사자 35.8%)이 높았다.

학력은 교사(대졸 60.4%, 석사이상 39.6%), 기관단체 종사자(대졸 67.9%, 석사이상 17.0%), 도시농업·농업관계자(대졸이상 48.7%, 석사이상 25.6%)의 대부분이 대졸이상인 반면에 학부모(고졸 43.7%, 전문대졸 19.7%), 지역주민(고졸 34.9%, 전문대졸 22.9%) 중에는 고졸이하가 많았다. 지역주민 중 석사이상은 4.6%, 학부모 중에서는 7.7% 수준이므로 다른 집단보다 그 비율이 적었다.

평균 연령은 도시농업·농업관계자가 50.5세로 가장 많았고, 기관단체종사자는 평균 38.8세로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주민 45.8, 학부모 43.7, 교사 42.2)보다는 적었다.

(표 2) 지역사회 주체(성인)의 일반적인 특성(N=448)

구분	빈도(%)	학부모 (n=147)	교사 (n=49)	지역 주민 (n=112)	기관단체 종사자 (n=55)	도시농업· 농업관계 자(n=85)
성별 (n=439)	남성(n=123) 여성(n=316)	19(13.1) 126(86.9)	20(41.7) 28(58.3)	19(17.4) 90(82.6)	21(38.9) 33(61.1)	44(53.0) 39(47.0)
소득 (n=430)	연 2400만원 이하(n=94)	32(23.0)	4(8.3)	29(26.9)	11(20.8)	18(22.0)
	연 3600만원 (n=106)	34(24.5)	8(16.7)	30(27.8)	16(30.2)	18(22.0)
	연 4800만원 (n=92)	34(24.5)	8(16.7)	22(20.4)	7(13.2)	21(25.6)
	연 4801만원 초과(n=138)	39(28.1)	28(58.3)	27(25.0)	19(35.8)	25(30.5)
학력 (n=430)	고졸(n=113)	62(43.7)	0(0.0)	38(34.9)	5(9.4)	8(10.3)
	전문대졸 (n=68)	28(19.7)	0(0.0)	25(22.9)	3(5.7)	12(15.4)
	대졸(n=185)	41(28.9)	29(60.4)	41(37.6)	36(67.9)	38(48.7)
	석사이상 (n=64)	11(7.7)	19(39.6)	5(4.6)	9(17.0)	20(25.6)
연령 (n=436)	390이하 (n=117)	25(17.4)	16(33.3)	34(31.5)	29(54.7)	13(15.7)
	40-44 (n=89)	63(43.8)	7(14.6)	11(10.2)	5(9.4)	3(3.6)
	45-49 (n=88)	36(25.0)	8(16.7)	20(18.5)	11(20.8)	13(15.7)
	50이상 (n=142)	20(13.9)	17(35.4)	43(39.8)	8(15.1)	54(65.1)
	(평균 44.8세)	43.7	42.2	45.8	38.8	50.5
	(S.D. 10.01)	5.29	9.95	11.45	10.26	11.24

4.2. 중학생(청소년) 문제 및 학교폭력 인식

요즘 중학생 문제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표 3>과 같이, χ^2 검증 결과 주체 간 통계적 유의차를 보였다.

중학생이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로 학생(49.5%)을 비롯한 학부모(58.0%) 등 지역사회주체들(주민 50.5%, 기관단체 종사자 47.2%, 도시농업·농업관계자 60.2%)이 모두 성적, 꿈과 같은 진학진로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는 김덕희(2006)의 중학생이 느끼는 고민 중 진로와 장애 47.6%와 비슷하다. 다만, 주민(31.8%), 기관단체종사자들(32.1%)은 중학생이 친구, 가족, 선생님과 같은 관계에 대하여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학부모보다 높았다.

외롭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와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하여 학생 자신은 혼자(33.9%) 또는 친구와(40.6%) 해결한다가 비슷하게 많았지만, 학부모의 상당수(31.7%)는 자녀가 부모나 가족과 협의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실제 학생의 18.8%만이 부모나 가족과 협의한다고 하였다.

방과 후 가는 곳은 학생 대다수가 집(52.6%) 또는 학원(28.1%)이라고 하였는데, 학원가는 경우는 부모의 생각(42.0%)보다 적었다. 반면에 주민(36.1%), 기관단체 종사자(37.0%), 도시농업·농업관계자(61.4%)는 학생이 학원 외에 게임하는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집에 간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이들의 생각보

(표 3) 지역사회 주체의 중학생(청소년)의 문제(인지)와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N=591)

구분	빈도(%)	학생 (N=192)	학부모 (N=147)	지역주민 (N=112)	기관단체 종사자 (N=55)	도시농업· 농업관계자 (N=85)	χ^2 검증 결과
요즘 가장 힘든 문제 (n=576)	관계(친구, 가족, 선생님등)(n=128)	40(21.1)	25(17.5)	34(31.8)	17(32.1)	12(14.5)	26.324* (df=12)
	진학진로(성적, 꿈)(n=306)	94(49.5)	83(58.0)	54(50.5)	25(47.2)	50(60.2)	
	자신(외모, 성격, 건강, 삶과죽음)(n=93)	34(17.9)	19(13.3)	12(11.2)	10(18.9)	18(21.7)	
	기타(n=49)	22(11.6)	16(11.2)	7(6.5)	1(1.9)	3(3.6)	
외롭거나 힘든 일 의는 상대 (n=577)	혼자(n=139)	65(33.9)	17(12.0)	27(25.0)	9(17.0)	21(25.6)	96.121** (df=16)
	친구(n=299)	78(40.6)	65(45.8)	70(64.8)	36(67.9)	50(61.0)	
	부모(가족)(n=87)	36(18.8)	45(31.7)	2(1.9)	2(3.8)	2(2.4)	
	선생님(n=9)	6(3.1)	2(1.4)	0(0.0)	1(1.9)	0(0.0)	
	상담센터 등(n=43)	7(3.6)	13(9.2)	9(8.3)	5(9.4)	9(11.0)	
방과 후 가는 곳 (n=580)	분식(피자)점(n=22)	5(2.6)	7(4.9)	5(4.6)	1(1.9)	4(4.8)	210.838** (df=20)
	게임하는 곳(n=144)	19(9.9)	15(10.5)	39(36.1)	20(37.0)	51(61.4)	
	텃밭이나 공원(n=7)	1(0.5)	1(0.7)	5(4.6)	0(0.0)	0(0.0)	
	학원(n=206)	54(28.1)	60(42.0)	44(40.7)	25(46.3)	23(27.7)	
	집(n=163)	101(52.6)	54(37.8)	4(3.7)	3(5.6)	1(1.2)	
기타(n=38)	12(6.2)	4(4.2)	7(10.2)	4(9.4)	4(4.8)		
학교폭력 경험 (n=580)	없다(n=316)	125(65.8)	102(70.9)	42(38.9)	22(40.8)	25(29.8)	67.295** (df=8)
	있다(본적있다)(n=150)	36(18.9)	12(8.3)	25(23.1)	14(25.9)	27(32.1)	
	이야기는 들었다(n=114)	29(15.3)	30(20.8)	41(38.0)	18(33.3)	32(38.1)	

* p<0.05, **p<0.01

다 많았다.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의 65.8%는 경험한 바가 없었고 ‘본 적 있다(18.9%)’,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들었다(15.3%)’는 수준인데 이는 학부모의 인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는 교육부(2015)의 중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 0.7%, 가해 0.3%, 목격 2.0%로 응답하여 전체 3.0%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지역주민 (61.1%)이나 기관단체종사자(59.2%), 도시농업·농업관계자(70.2%)의 학교폭력 직간접 경험의 비율이 학생이나 학부모보다 높았다.

<표 4>와 같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성인 주체의 인지도와 이해수준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으로 검증해본 결과 ‘방과 후 가는 곳’, ‘힘든 문제가 있을 경우 누구와 의논하는가’에 대해서 통계적 유의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이 힘들어하는 문제, 방과 후 가는 곳,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하여 누구와 의논하는가’의 3가지 항목 인지도를 합하여 ‘청소년 생활 이해도’로 명명하고 그 차이를 보았을 때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지역사회 주체의 중학생 청소년 이해수준 비교

구 분	청소년 생활 이해도 (3점)a		1)청소년 힘든 문제 인지(1점)		2)방과 후 가는 곳 이해도(1점)a		3)힘든 일 의논상대 인지(1점)a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학부모(N=147)	1.39	.887	.38	.486	.43	.50	.58	.496
지역주민(N=112)	1.33	.615	.04	.190	.36	.48	.90	.304
기관단체종사자(N=55)	1.25	.622	.06	.231	.39	.49	.85	.361
도시농업·농업관계자(N=85)	1.34	.674	.01	.110	.45	.50	.87	.343
F Value	0.492		0.479		33.522		16.942	
자유도	376		385		387		384	
유의확률(p)	0.688		0.697		0.000		0.000	
사후검정(LSD)	NS		NS		학부모 > 주민*, 기관단체종사자*, 도시농업관계자*		학부모 > 주민*, 기관단체종사자*, 도시농업관계자*	

* p(0.05, **p(0.01, NS(non-significant)
a : Levene의 동질성 검정결과 동질하지 않은 변수(비모수 검정 대상 변수)

‘청소년 생활에 대한 이해도, 방과 후 가는 곳에 대한 이해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의논 상대’에 대한 인지도는 분산분석에서 Levene의 동질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여 <표 6>과 같이 비모수 검정(Lruskal-Wallis)방법으로 동질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차이를 추가로 검증한 결과, ‘중학생(청소년)이 방과 후에 가는 곳’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상대’에 대한 성인 주체의 인식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있었다.

<표 5>는 지역사회 성인 주체의 중학생(청소년) 학교폭력 경

험, 대처방법에 대한 인지수준과 실제 학교폭력에 대하여 목격하거나 관련되었을 때 행동해야 할 요령을 알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학교폭력 대처 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으로 검증한 결과다.

‘학교폭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였거나 인지’ 비율은 학부모보다 주민, 기관단체종사자, 도시농업·농업관계자가 더 많았고,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학교폭력 대처방법과 지원체계(신고 전화번호 117, 굿바이 학교폭력 앱, Wee센터와 Wee스쿨,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에 대체로 인지수준이 낮았지만, 학부모가 다소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또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행동 의지도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이웃주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5) 지역사회 주체의 학교폭력 경험 및 대처수준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교폭력 인지 (경험)(2점)a		학교폭력 대처인지(4점)		학교폭력 대처행동(5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학부모(N=147)	0.37	0.64	0.33	0.20	3.38	0.77
지역주민(N=112)	0.84	0.78	0.24	0.21	3.00	0.83
기관단체종사자(N=55)	0.85	0.81	0.30	0.23	3.15	0.86
도시농업·농업관계자(N=85)	1.02	0.79	0.23	0.20	3.22	0.90
F value	16.892**		6.816**		4.413**	
자유도	389.000		398		388	
유의확률(p)	0.000		0.000		0.005	
사후검정(LSD)	학부모 < 주민*, 기관단체종사자*, 도시농업·농업관계자*		학부모 > 주민*, 도시농업·농업관계자*, 기관단체종사자 > 도시농업·농업관계자*		학부모 > 주민*	

* p(0.05, **p(0.01, NS(non-significant)
a : Levene의 동질성 검정결과 동질하지 않은 변수(비모수 검정 대상 변수)

(표 6) 지역사회 주체의 청소년이해, 학교폭력 경험 중 동질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K-W 검증결과

구 분	중학생 청소년 생활 이해도(3점)		방과후 가는곳 인지(1점)		힘든일 대처방법 인지(1점)		학교폭력 인지(경험)(2점)	
	N	평균 순위	N	평균 순위	N	평균 순위	N	평균 순위
학부모(N=147)	140	193.34	143	236.76	142	156.66	144	149.79
지역주민(N=112)	105	186.97	108	170.69	108	218.39	108	214.37
기관단체종사자(N=55)	52	177.14	54	174.28	53	208.94	54	214.24
도시농업·농업관계자(N=85)	80	191.78	83	165.84	82	212.18	84	237.55
Levene통계량 (동질성 검정)	9.601**		229.287**		56.315**		3.123*	
Kruskal-카이제곱	1.101NS		80.317**		45.197**		47.217**	
Wallis 자유도	3		3		3		3	
검정통계량	근사유의 확률		0.777		0.000		0.000	

* p(0.05, **p(0.01, NS(non-significant)

학교폭력 인지수준은 분산분석 결과 Levene의 동질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표 6>과 같이 비모수 검정 (Lruskal-Wallis)방법으로 동질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차이를 추가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4.3. 텃밭활동과 학교폭력 예방 인식의 관계

텃밭활동을 통한 중학생(청소년)의 변화에 대한 생각은 <표 7>과 같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식물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 증가(30.9%, 46.6%, 41.9%)’, ‘친구·부모·가족 등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24.2%, 21.2%, 25.6%)’을 우선 지적한 반면, 주민이나 기관단체종사자, 도시농업농업관계자는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22.4%, 25.9%, 21.4%)’ 효과를 ‘식물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 증가(30.8%, 33.3%, 36.9%)’ 다음으로 꼽아서 차이를 보였다.

<표 7> 텃밭 활동을 통한 변화에 대한 생각

구 분	식물이나 자연에 관심 증가	친구(학생, 부모(자녀), 가족과 친밀감 신뢰, 소통증가	공부(수업)에 더 집중 명확화	좋은 말 많이 하고 정서 안정	식습관 개선 신체건강 증진
전 체(n=583)	214(36.7)	115(19.7)	38(6.5)	97(16.6)	119(20.4)
학생(n=149)	46(30.9)	36(24.2)	16(10.7)	17(11.4)	34(22.8)
학부모(n=146)	68(46.6)	31(21.2)	4(2.7)	19(13.0)	24(16.4)
교 사(n=43)	18(41.9)	11(25.6)	4(9.3)	5(11.6)	5(11.6)
주 민(n=107)	33(30.8)	19(17.8)	7(6.5)	24(22.4)	24(22.4)
기관단체 종사자(n=54)	18(33.3)	4(7.4)	4(7.4)	14(25.9)	14(25.9)
도시농업농업 관계자(n=84)	31(36.9)	14(16.7)	3(3.6)	18(21.4)	18(21.4)
Pearson카이 제곱	37.471*	(df=20)		p=.010	

학교폭력 예방과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표 8>과 같다. 학부모(30.0%), 교사(31.3%), 기관단체종사자(28.0%), 도시농업농업관계자(30.1%) 모두 ‘학부모(학생가족) 프로그램과 상담’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주민은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관심’이 더 중요하다(26.9%)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19.3%)나 교사(22.9%)는 ‘행사나 직업체험 기회’의 제공 등 학교와 지역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웃주민(13.9%), 기관단체종사자(10.0%), 도시농업·농업관계자(12.0%)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소 동네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인사하기’는 기관단체종사자(32.0%)와 교사(20.8%), 도시농업·농업관계자(20.5%)보다 주민(15.7%)이나 학부모(8.6%)의 동의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텃밭이나 공원 확대’는 도시농업·농업관계자(28.9%), 주민(20.4%), 학부모(16.4%)가 상당히 동의하였으나, 교사(8.3%), 기관단체종사자(6.0%)의 관심은 적었다.

<표 8> 학교폭력 예방과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구 분	학부모(학생 가족)프로그램과 상담	텃밭이나 공원 확대	학교폭력 신속한 신고와 관심	학교-지역 소통(행사, 직업체험)	동네학생에 대한 관심과 인사하기
전 체(n=429)	121(28.2)	76(17.7)	92(21.4)	68(15.9)	72(16.8)
학부모(n=140)	42(30.0)	23(16.4)	36(25.7)	27(19.3)	12(8.6)
교 사(n=48)	15(31.3)	4(8.3)	8(16.7)	11(22.9)	10(20.8)
주 민(n=108)	25(23.1)	22(20.4)	29(26.9)	15(13.9)	17(15.7)
기관단체 종사자(n=50)	14(28.0)	3(6.0)	12(24.0)	5(10.0)	16(32.0)
도시농업농업 관계자(n=83)	25(30.1)	24(28.9)	7(8.4)	10(12.0)	17(20.5)
Pearson카이 제곱	42.372a	(df=16)		p=.000	

중학생(청소년)의 학교적응에는 개인과 가정의 사회적 자본이 관계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변수와 정서수준, 그리고 그 변수에 따른 텃밭활동의 학교폭력 예방효과에 대한 동의정도를 파악하였다. 관련 변수는 <표 2>와 같이 개인, 가정, 지역사회 및 텃밭 관련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9>에서 가정 관련 변인을 보면 중학생(청소년) 76.4%(136명)의 부모(보호자)가 학교와 거의 소통하지 않으며, 부모(보호자)의 직업은 비교적 수입이 안정적인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교육직 등이 63.7%(114명), 텃밭활동에는 25.2%(46명)만이 가족과 함께 참여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및 텃밭 관련 변인에서는, ‘평소 관심을 가져주는 이웃이 없다’ 38.8%(71명), ‘텃밭활동 체험’ 76.1%(140명), 텃밭접근성은 53.0%(97명)이 ‘좋다(근처에 있다 또는 조금만 돌아가면 있다)’고 하였고, 평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비율은 33.1%(58명)이었다.

이들 변수에 따라 중학생(청소년)의 정서수준을 t검증 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 결과, 요즘 진로, 진학, 성적 등을 고민하는 경우, 방과 후 집이나 학원에 가는 학생이 다른 곳에 가는 학생보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친구와 의논하거나 부모 등과 의논하는 경우에 혼자 해결하는 학생보다,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학생의 정서안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보호자)가 학교와 소통하는 경우, 부모(보호자)가 수입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 가족과 텃밭활동 참여의향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정서수준이 높았고, 통계적으

〈표 9〉 개인, 사회자본에 따른 중학생(청소년)의 정서수준과 텃밭활동 통한 학교폭력 예방효과 동의수준

독립변인	종속변인	정서수준		텃밭활동 통한 학교폭력 예방효과					
		평균	t/F Value	사후검정(LSD)	평균	t/F Value	사후검정(LSD)		
성별(n=154)	남성(n=69)	3.65	-0.712NS (p=.477)		3.48	-0.541NS (p=.589)			
	여성(n=85)	3.72			3.55				
방과 후 가는 곳 (n=184)	집(n=97)	3.72	6.763** (df=183) (p=.001)	집, 학원 > 기타*	3.58	1.543NS (df=189) (p=.216)			
	학원(n=52)	3.81			3.57				
	기타(n=35)	3.38			3.31				
개인 관련 변인	요즘 힘든 문제 (n=183)	진학, 진로(성적, 꿈)(n=89)	3.81	2.925** (p=.004)		3.66	2.019* (p=.045)		
		기타(n=94)	3.57			3.41			
힘든 일 의논 상대(n=184)		혼자(n=64)	3.46	8.958** (df=183) (p=.000)	혼자 < 친구와*, 기타*	3.44	1.579NS (df=189) (p=.208)		
		친구와(n=74)	3.85			3.49			
		기타(가족, 선생님, 센터 도움)(n=46)	3.73			3.71			
학교폭력 경험(n=182)	없다(n=119)	3.76	2.144* (p=.033)		3.57	2.928* (p=.355)			
	있다(들었다, 봤다)(n=63)	3.57			3.45				
부모(보호자)의 학교소통 정도(n=178)	거의 없다(n=136)	3.64	-2.07* (p=.04)		3.49	-0.680NS (p=.498)			
	있다(n=42)	3.84			3.59				
가정 관련 변인	부모(보호자)의 직업(n=179)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교육직(n=114)	3.77	2.74** (p=.007)		3.60	1.677NS (p=.095)		
		자영업, 서비스, 일용근로자등(n=65)	3.53			3.38			
가족과 텃밭활동 참여의향 (n=182)		참여 안함(n=46)	3.50		참여안함 < 보통*, 참여함*	2.98	참여안함 < 보통*, 참여함* 보통 < 참여함* Note: 비모수 동질성 검정(K-W)결과 카이제곱=27.570 (df=2)(p=.000)		
		보통(n=90)	3.73			3.825* (df=181) (p=.024)		3.61	18.137** (df=188) (p=.000)
		참여함(n=46)	3.79					3.91	
지역사회 및 텃밭 관련 변인	지역사회 범위에 대한 인식 (n=186)	학교와 집(n=27)	3.47	2.707NS (df=178) (p=.070)	학교와 집 < 행정구역*	3.82	3.823* (df=185) (p=.024)	학교와 집 < 학교와 집 주변 마을*	
		학교와 집 주변마을(n=83)	3.70			3.36			
		행정구역(n=69)	3.76			3.61			
평균 관심을 가져주는 이웃(n=183)		없다(n=71)	3.56	8.62** (df=182) (p=.000)	없다 > 보통, 간헐적* 보통, 간헐적 < 많다, 항상, 자주*	3.45	0.738NS (df=188) (p=.479)		
		보통, 간헐적으로있다(n=23)	3.43			3.50			
		많다, 항상, 자주있다(n=89)	3.85			3.60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n=175)		없다(n=117)	3.66	-.96NS (p=.341)		3.42	-1.991NS (p=.048)		
		있다(n=58)	3.75			3.69			
텃밭체험여부 (n=184)		없다(n=44)	3.57	-1.521 NS (p=.130)		3.33	-1.529NS (p=.132)		
		있다(n=140)	3.72			3.59			
텃밭접근성 (n=183)		좋지 않다(n=86)	3.61	-1.488 (p=.139)		3.51	-0.205NS (p=.838)		
		좋다(n=97)	3.74			3.54			

* p(0.05, **p(0.01, NS(non-significant)

로 유의하였다.

지역사회 범위는 학교와 집이라고 생각하는 집단보다는 행정 구역이라고 넓게 생각하는 집단의 정서안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고, 평소에 이웃이 항상, 자주 관심을 가져주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정서적 안정도 수준이 뚜렷하게 높았다. 이는 김태준, 현영섭, 변종임, & 이덕현(2010)과 김경식, 최성보, & 이현철(2009)의 결과와 유사하다.

텃밭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요즘

‘진로, 진학, 성적’을 고민하는 학생, 학교폭력 경험이 없는 학생, 가족과 함께 텃밭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집단, 지역사회 범위를 ‘학교와 집’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중학생(청소년)의 정서수준과 텃밭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효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련성과 크기, 유의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방과 후 가는 곳, 요즘 힘든 문제, 힘든 일 의논 상대, 학교폭력 경험, 부모(보호자)의 직업과 학교와 소통

(표 10) 중학교 청소년의 정서수준과 텃밭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효과 동의에 대한 영향변인(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정서적 안정수준					텃밭활동의 학교폭력 예방효과									
		B	SE	β	t	p	VIF	B	SE	β	t	p	VIF			
(상수)		2.679	.201		13.312	.000		1.886	.319		5.909	.000				
성별	남성(더미 1 or 0)	-.057	.057	-.058	-.997	.320	1.049	-.121	.092	-.068	-1.320	.188	1.040			
방과 후 가는 곳	집 또는 학원(더미 1 or 0)	.058	.063	.057	.915	.361	1.205	-.048	.101	-.026	-.476	.634	1.215			
요즘 힘든 문제	성적 또는 진로(꿈)(더미 1 or 0)	.088	.057	.089	1.531	.127	1.052	.197	.092	.111	2.141**	.033	1.057			
힘든 일 의논 상대	혼자 1, 친구와 2, 부모, 선생님, 센터등 도움 3	.076	.044	.103	1.718	.087	1.126	-.058	.070	-.044	-.835	.404	1.107			
학교폭력 경험	직간접 경험(더미 1 or 0)	-.121	.060	-.123	-2.006*	.046	1.174	.044	.097	.025	.456	.649	1.177			
부모(보호자)의 학교방문 소통빈도	거의 안감, 월 1회 2, 월2회 3, 거의 매주 4	.134	.040	.204	3.358**	.001	1.158	.023	.064	.020	.364	.716	1.165			
직업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 (더미 1 or 0)	-.046	.068	-.044	-.686	.493	1.316	-.066	.110	-.035	-.598	.550	1.331			
가족과 텃밭활동 참여의향	참여 안함1, 보통2, 참여함3	.083	.043	.124	1.948	.052	1.271	.574	.068	.475	8.425**	.000	1.256			
지역사회 범위	학교와 집1, 학교와 집 주변마을2, 행정구역 3	.055	.045	.071	1.228	.221	1.049	.025	.072	.018	.353	.724	1.051			
지역 도시농업 수준	도시농업 활발(더미 1 or 0)	.137	.061	.135	2.243*	.026	1.142	.012	.097	.007	.126	.900	1.126			
관심 가져주는 이웃	없다 1, 가끔 2, 항상 3	.090	.035	.152	2.552*	.011	1.109	.068	.056	.064	1.209	.228	1.102			
자원봉사	참여 한다 (더미 1 or 0)	.042	.063	.041	.677	.499	1.166	.123	.100	.066	1.227	.221	1.158			
텃밭활동 체험	있다 (더미 1 or 0)	.148	.064	.137	2.311*	.022	1.102	.461	.103	.238	4.470**	.000	1.116			
텃밭접근성	좋지 않다 1, 좋다 2	.063	.062	.062	1.015	.311	1.155	-.015	.100	-.008	-.155	.877	1.169			
R^2							.215					0.346				
Adjusted R^2												.170				
F-Value												4.802**				
D-W												1.876				

* p(0.05), **p(0.01), NS(non-significant)

정도, 가족과 텃밭활동 참여의향, 지역사회 범위에 대한 인식, 지역의 도시농업 활성화 수준, 평소 관심 가져주는 이웃, 자원봉사활동 참여, 텃밭활동 체험 여부, 텃밭접근성'을 투입변수로 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제거된 변수는 없으며, VIF 값은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으며, 2개의 회귀식 모두 D-W 값이 1.876, 2.037로 나타나 기준값 2 정도의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수준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802, p<0.01),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R²)은 21.5%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학교폭력 경험(β =-.123, p<0.01), 부모(보호자)의 학교와 소통정도(β =0.204, p<0.01), 지역의 도시농업 활성화 수준(β =0.135, p<0.01), 평소 관심을 가져주는 이웃(β =0.152, p<0.01), 텃밭활동 체험여부(β =0.137, p<0.01)이었으며, 나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텃밭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동의수준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9.765, p<0.01),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R²)은 34.6%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요즘 힘든 문제(β =-0.111, p<0.05), 가족과 텃밭활동 참여의향(β =0.475, p<0.01), 텃밭활동 체험여부(β =0.238, p<0.01)이었고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의한 변수들의 β 값이 상대적으로 크다.

<표 11>은 텃밭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는 가에 대한 지역사회 성인 주체의 인식수준과 관련 변인을 알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투입변수는 성별, 소득, 학력, 연령, 정서수준(14항목 평균), 학교폭력 경험, 지역의 도시농업 수준, 교류하는 이웃, 자원봉사활동 참여, 학교와 소통정도, 평소 학생에 대한 관심, 중학생의 방과 후 가는 곳, 힘든 문제, 어려운 일의 의논상대 등에 대한 이해도, 지역사회 범위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인식, 텃밭활동 체험 여부, 텃밭접근성, 학교폭력 대처행동의 향 등이다.

〈표 11〉 지역사회 주체(성인)의 텃밭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효과 동의에 대한 영향변인(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텃밭활동의 학교폭력 예방효과					
		B	SE	β	t	p	VIF
(상수)		.708	.492		1.438	.151	
소득	연 1,200만원이하 1, 연 5,000만원 초과 7	-.003	.025	-.006	-.128	.898	1.248
학력	고졸이하 1, 박사 5	.060	.046	.067	1.303	.194	1.365
성별	남성(더미 1 or 0)	.053	.104	.025	.512	.609	1.217
연령		.020	.005	.210	4.360**	.000	1.197
정서수준(14항목) 평균	정말 아니다 1, 정말 그렇다 5	.129	.123	.059	1.051	.294	1.626
학교폭력경험	직간접 경험(더미 1 or 0)	.078	.095	.041	.817	.415	1.294
지역 도시농업 수준	도시농업 활발(더미 1 or 0)	-.146	.092	-.076	-1.583	.114	1.208
교류하는 이웃	없다 1, 가끔 2, 항상 3	.173	.065	.130	2.639**	.009	1.249
자원봉사	참여한다(더미 1 or 0)	.074	.102	.036	.724	.470	1.304
학교방문, 이용, 소통빈도	거의 안함1, 월 1회 2, 월2회 3, 거의 매주 4	-.021	.065	-.016	-.323	.747	1.256
평소 학생에 대한 관심	정말 아니다 1, 정말 그렇다 5	.064	.060	.056	1.064	.288	1.450
중학생 방과 후 가는 곳 인지	인지(더미, 1 or 0)	-.331	.132	-.126	-2.507*	.013	1.300
중학생 힘든 문제 인지	인지(더미, 1 or 0)	.111	.091	.057	1.224	.222	1.133
중학생 힘든 일 의논 상대 인지	인지(더미, 1 or 0)	.294	.109	.129	2.693**	.007	1.194
지역사회 범위	학교와 집1, 학교와 집 주변마을2, 행정구역 3	-.043	.080	-.025	-.533	.594	1.093
텃밭활동 체험	있다(더미 1 or 0)	.357	.098	.187	3.633**	.000	1.372
텃밭활동 참여의향	참여 안함1, 보통2, 참여함3	.311	.085	.183	3.678**	.000	1.280
학교폭력예방지역사회역할	텃밭이나 공원 확대(더미 1 or 0)	.202	.116	.081	1.744	.082	1.109
텃밭접근성	좋지 않다 1, 좋다 2	.184	.099	.093	1.856	.064	1.287
학교폭력대처행동	정말 아니다 1, 정말 그렇다 5	-.194	.060	-.167	-3.251**	.001	1.374
R^2				.403			
Adjusted R^2				.364			
F-Value				10.423** (p=.000)			
D-W				1.748			

* p<0.05, **p<0.01, NS(non-significant)

이들 변수 중 제거된 변수는 없으며, VIF 값은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고, D-W 값이 1.748로 기준값 2정도이며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텃밭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대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0.423, p<0.01),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R²)은 40.3%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 가운데 텃밭활동의 효과 인식에 유의한 변인은 연령($\beta=0.210$, p<0.01), 교류하는 이웃($\beta=0.130$, p<0.01), 중학생이 방과 후 가는 곳에 대한 인지($\beta=0.126$, p<0.05), 힘든 일 있을 때 의논하는 상대에 대한 인지($\beta=0.129$, p<0.01), 텃밭활동 체험($\beta=0.187$, p<0.01), 텃밭활동 참여의향($\beta=0.183$, p<0.01), 학교폭력 대처행동의향($\beta=0.167$, p<0.01) 등이었다. 그 외의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향후 텃밭활동을 통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학교폭력이 본격화되는 중학생과 지역사회 주체들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수원, 대구의 1개 중학교와 학생, 교사, 학부모, 주민, 기관단체 종사자, 도시농업·농업관계자 등 640명을 대상으로 텃밭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인식 차이와 관련 변수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학교폭력 인식 측면에서는 직간접 경험 비율이 교육부(2015)의 통계결과보다 높았으며, 학부모보다는 주민, 기관단체종사자, 도시농업·농업관계자의 목격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민이나 도시농업·농업관계자, 기관단체종사자의 청소년이해수준은 높지 않았다. 둘째, 텃밭활동과 학교폭력 예방 인식의 관계 측면에서는, 힘든 일 의논상대,

학교폭력 경험, 가족과 텃밭활동 의향, 지역사회 범위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인의 경우에도 연령, 교류하는 이웃 여부, 청소년 이해수준(방과 후 가는 곳과 힘든 일 의논상대 인지), 텃밭활동 체험여부와 참여의향, 학교폭력 대처행동 의지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청소년)의 정서수준은 부모(보호자)의 인지된 학교에 대한 영향력, 지역사회 친밀감이나 관심을 가져주는 이웃들, 지역사회 범위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텃밭활동 체험여부, 가족과 텃밭활동에 참여의향 등에 따라라도 중학생(청소년)은 정서적인 수준에 차이를 보여, 텃밭활동이 청소년의 정서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 2013; 남신미, 2003; 최영애, 2008; Hassink, & Dijk, 2007; Guitart, Pickering, & Byrne, 2014)을 지지하였다. 또 텃밭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학생(청소년)의 학교폭력과 텃밭활동 체험 경험, 관심을 가지고 교류하고 지지해주는 이웃(사회)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학교와 소통하고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의향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김경식, 최성보 & 이현철, 2009; 김태준, 현영섭, 변종임, & 이덕현, 2010; Hazzard, Moreno, Beall, & Zidenberg-Cherr, 2012)도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결론과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부모(보호자)가 학교와 소통하는 정도에 따라 정서수준에 영향을 받는데, 가족과 함께 텃밭 활동에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텃밭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학교와 가정의 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족과 함께 텃밭활동을 하고자 하거나 체험해본 학생은 텃밭활동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요즘 성적이나 꿈 등 진학과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는 학생이 오히려 텃밭활동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텃밭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학생은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는 이웃이 있는가 정서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서도 동네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인사하기에 대하여 기관단체종사자(32.0%), 교사(20.8%), 도시농업·농업관계자(20.5%)의 상당수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지역사회 성인 주체들은 학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청소년의 문제와 요구를 이해하도록 돕고 지역사회 주체들이 학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텃밭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

지만 특히 텃밭은 작물의 생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만나게 되며, 작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도시농업·농업관계자의 텃밭활동 참여의향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들을 부모-중학생(청소년)-교사가 함께 하는 텃밭활동의 멘토로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부모의 직간접 경험 수준이 낮은 반면, 학생이나 주민, 기관단체종사자, 도시농업농업관계자의 발견경험은 높았다. 학교폭력 대처행동 의지는 학부모가 높았지만 대처방법에 대한 인지수준은 비교적 낮았다. 학교폭력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 기관단체종사자, 주민, 도시농업농업관계자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한다면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상호 만나게 하고 평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에 텃밭·공원을 늘려야 한다고 도시농업농업관계자(28.9%), 주민(20.4%), 학부모(16.4%)가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텃밭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시농업농업관계자들을 멘토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볼 수 있다.

넷째, 중학생(청소년)의 현재 문제와 방과 후 가는 곳 등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힘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논하는 상대 등에 대하여 학부모나 교사는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부모나 선생님보다는 혼자 또는 친구와 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혼자서 문제를 풀어가는 학생들은 친구 또는 부모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보다 정서적 안정도가 낮았다. 그러나 평소 관심을 가져주는 이웃이 있는 중학생(청소년)의 경우 정서가 안정적이었으며 그 비율도 높았다. 따라서 평소에 주민들이 주변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텃밭활동에 대하여 학부모, 교사는 소극적이지만 텃밭활동으로 인한 중학생(청소년)의 변화에 대해서는 식물에 대한 관심 증가, 학교와 가정의 관계개선 등에 기대감이 높았다. 주민이나 도시농업·농업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정서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중학생(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부모, 교사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농업농업관계자 교육을 담당하는 농촌진흥기관들과 학교의 교사연수를 담당하는 교원연수원이나 지역교육청 등이 협력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학교에서 텃밭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이 교육부와 효

과적인 업무협력을 통한 지원체계도 중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체들과 학생, 학부모, 교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뒷받침활동은 학교폭력 예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 비교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변화를 측정할 사례가 아니고 관련 주체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응답에 기초한 것을 측정하였기에 단편적인 정보라는 점에서, 향후 뒷받침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의 가능성과 문제들을 실증적으로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현주, & 노충래. (2012). 청소년 자아개념에 대한 지역 효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3(4), 101-129.
- 강현주, & 신인순. (2015).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9), 25-48.
- 교육과학기술부, &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어촌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하여 교과부와 농식품부가 함께 나서다*.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 교육부.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4).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 *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세종: 교육부.
- 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 (2013).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 909-936.
- 김경식, 최성보, & 이현철. (2009).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25(2), 60-83.
- 김대회, & 이채식. (200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생태적 접근. *농촌지도와 개발*, 11(1), 161-174.
- 김덕희. (2006). *중학교 학생들의 고민 실태에 관한 연구-원주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원. (2014). *중학생의 학교폭력과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원. (2009).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8, 101-134.
- 김영지, 방은령, 박정선, & 박경희. (2006).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426.
- 김옥순, & 신인순. (2013). 세계시민교육 참여 청소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연계형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례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6(단일호), 8-28.
- 김진완. (2015). 지역이벤트 체험이 사회적 연결감과 지역사회 애착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준, 현영섭, 변중임, & 이덕현. (2010).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3차년도):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0-25-03.
- 김혜원. (2013).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 서울: 학지사.
- 남선미. (200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적용*.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농림축산식품부. (2013).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3~2017)*.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6a). *2016년도 도시농업육성 시행계획*.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2016b). *뒷밭정원으로 떠나는 꿈틀 여행: 꿈틀 어린이 뒷밭학교 189일의 기록*.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박경철, & 김성수. (2001). 지역사회 친밀도의 최근 연구와 관련변인 고찰. *농촌지도와 개발*, 8, 201-208.
- 박성희, 김경수, 김기종, 남윤미, 이동갑, 이재용, & 장희화. (2013).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중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상담*. 서울: 학지사.
- 박승곤, 김수정, & 문성호. (2013).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역별 차이 분석. *청소년학연구*, 20(4), 199-224.
- 박진규. (2005). 학교 폭력과 지역사회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2(4), 409-440.
- 박진희. (2016).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진, & 양혜원. (2013).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257-278.
- 박효정, & 이희현. (2013).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 참여율제고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CP, 02-3.
- 성은모, & 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손선옥, & 이봉주. (201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영향요인: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 *청소년학연구*, 22(10), 1-26.
- 송수정. (2014).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 우울의 보호요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5(1), 107-127.
- 오병호, & 이상구. (2012).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9(2), 231-252.
- 오해섭. (2008).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청소년 역량강화 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15, 417-432.

34. 윤준상, & 최창욱. (1998). 지역사회주민의 지역사회 친밀도와 관련 변인. *농촌지도와 개발*, 5, 113-122.
35. 이미나. (2013). 중학생의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교육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6. 정연순, 고재성, 강옥희, & 서정화. (2012). 지역사회 기반 중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연구*, 31(1), 217-240.
37. 최영애. (2008). *원예치료 실행에서 식물 양육에 대한 이론적 모델: 나선모델과 애착이론에 기반하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8. 최영창, 이채식, 이은영, & 김영애. (2013). 농심함양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 20(1), 205-233.
39. 최창욱, 김성수, 윤준상, & 박덕병. (1997). 지역사회친밀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4, 317-327.
40. 한지연. (2007). 사회적지지, 학교참여(School Engagement)와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 함성기. (2015). 사회자본의 형성정도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2. 홍나미, & 박재연. (2014). 학교폭력 피해청소년과 가족대상 실천적 지원방안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2), 81-107.
43. 홍영란, 현영섭, & 김강호. (2009).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2차년도): 사회적 자본 수준·정책분석 및 교육투자 효율화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9-27-03.
44. 홍진영. (2013). 중학생의 환경적 변인과 학교폭력경험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 Albayrak, S., Yıldız, A., & Erol, S. (2016). Assessing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prevention programs on reducing bully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3, 1-9.
46. Altun, S. A., & Baker, Ö. E. (2010). School violence: a qualitative case stud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3165-3169.
47. Contreras, D., Elacqua, G., Martinez, M., & Miranda, Á. (2015). Income inequality or performance gap? A multilevel study of school violence in 52 countri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7(5), 545-552.
48. Dumitriu, C. (2013). School violence around the world: A social phenomeno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2, 299-308.
49. Fisher, K., & Kettl, P. (2003). Teachers'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17(2), 79-83.
50. Guitart, D. A., Pickering, C. M., & Byrne, J. A. (2014). Color me healthy: Food diversity in school community gardens in two rapidly urbanising Australian cities. *Health & place*, 26, 110-117.
51. Hassink, J., & Van Dijk, M. (2006). *Farming for Health: Green-care farming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13).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52. Hazzard, E. L., Moreno, E., Beall, D. L., & Zidenberg-Cherr, S. (2011). Best practices models for implementing, sustaining, and using instructional school gardens in California.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and Behavior*, 43(5), 409-413.
53. Hazzard, E. L., Moreno, E., Beall, D. L., & Zidenberg-Cherr, S. (2012). Factors contributing to a school's decision to apply for the california instructional school garden program.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and behavior*, 44(4), 379-383.
54. Jiménez-Barbero, J. A., Ruiz-Hernández, J. A., Llor-Zaragoza, L., Pérez-García, M., & Llor-Esteban, B. (2016). Effectiveness of anti-bullying school programs: A meta-analysi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1, 165-175.
55. Laaksoharju, T., Rappe, E., & Kaivola, T. (2012). Garden affordances for social learning, play, and for building nature-child relationship. *Urban Forestry & Urban Greening*, 11(2), 195-203.
56. Mertoglu, M. (2015). The Role of School Management i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82, 695-702.
57. Miller, S., Williams, J., Cutbush, S., Gibbs, D., Clinton-Sherrod, M., & Jones, S. (2015). Evaluation of the start strong initiative: preventing teen dating violence and promoting healthy relationship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6(2), S14-S19.
58. Türküm, A. S. (2011). Social supports preferred by the teachers when facing school viole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5), 644-650.

Received 15 August 2016; Revised 09 September 2016; Accepted 11 September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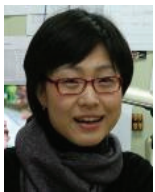


Dr. Gyung Mee Gim is a senior scientist of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education, extension service, gender studies of agriculture, 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of urban agriculture.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gimgm@rda.go.kr

phone) 82-063-238-6920



Dr. Sun Jin Jeong is a researcher of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horticultural activity, indoor plants.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sunjin75@korea.kr

phone) 82-82-063-238-6942



Dr. Sangmi Lee is a researcher of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horticultural therapy.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sangmilee@korea.kr

phone) 82-063-238-6921



Dr. Seon Hee Jeong is a post-doctoral researcher of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horticultural therapy.

Address: (55365)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sunsky@korea.kr

phone) 82-82-063-238-6953